



정교회주보

제2414호

2023.4.2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키프로스의 리오페트리 강변에는 16세기에 돌을 쌓아 세워진 독특한 모습의 성당이 있는데, 성 게오르기오스 대순교자의 이름 (사진)으로 봉헌된 성당이다. 성당 명명 성인인 성 게오르기오스 대순교자는 3세기 말 소아시아 동부의 카파도키아 출신으로 디오클레티안 황제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신앙고백을 하였으며,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였다.

사순절 제5주일
(성 마리아 이집트인 수녀)
성 디도스 수도자
(제1조 • 조과 복음 9)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81
- 성 마리아 이집트인 수녀 찬양송 ...
(비교정 축일 성가집) 51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가송 85
- 사도경 : 히브리 9,11~14 234
- 복음경 : 마르코 10,32~45 ... 141
- 성모송 62

성령의 거처가 되신 분

어머니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명해진 당신은 사막의 열기와 고통을 가벼운 마음으로 견디셨나이다. 금욕가들의 영광이며 거룩함의 정상이시여, 거룩한 통회의 물결로 당신은 옛적의 더러운 생각들을 다 씻어냈나이다.

홀로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빛나는 광채로 당신을 둘러싸셨나이다. 당신을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분으로 만드셨나이다. 마리아여, 당신은 신자들을 위해 금욕가들의 영광, 거룩함의 정상이 되셨나이다.

지상의 것들을 포기하여, 당신은 성령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기념하여 찬양하는 모든 이들을,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그리스도께 간청해주소서.

'뜨리오디온 전례서'에서

영광의 자리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제 베대오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을 따르며 시중을 들기도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곳에 있었을 만큼 주님을 매우 따랐던 분이다.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옆드리며 절하며 청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의 두 아들이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마태오 20,21 참조) 또한 두 아들도 어머니가 주님께 간청드린 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들을 주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시기를 간청한다.(마르코 10,35-37 참조)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마태오 20,22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마르코 10,45 참조)

이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모든 이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갇은 고통을 받으며 시련을 겪게 되리라는 말씀이었다.

피조물인 사람이 주님의 옆에 앉게 되는 것은 분명 영광된 일이다. 이러한 영광의 자리를 갈망하였기에 열두 사도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 곁을 지키며 열정적으로 따랐고, 그로 인해 천상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이를 증언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들은 주님께서 다볼 산에서 변모하실 때 신비로운 주님의 변모를 볼 수 있었고, 죽은 이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주님 곁에 있었으며, 주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게세마니 동산에서 고난의 기도를 하실 때도 고뇌에 차서 피땀을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것이다.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주님 곁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었듯이, 우리도 온 힘을 다해 주님 가까이에 위치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열정으로 남은 대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지는 예배와 금식과 기도 생활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고통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간청을 해보자.

‘미안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 하늘을 닮은 두 가지 표현

필레몬 신부 지음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용서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용서를 빕니다.”라는 말이 없는 곳 말입니다.

그곳은 화해를 모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선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이 점점 더 포악해져만 갑니다.

그런 곳에선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그 손실을 다시 보태어 채울 줄을 모릅니다.

그곳에선 아무도 서로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 하느님, 이것이 무슨 악몽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까!

정말이지, 화해보다 더 아름다운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오해를 지워 없애고, 상처를 치유하며, 긴장과 소란을 사라지게 하고, 외적이고 내적인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작은 한 마디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며,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치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어떤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고백성사야말로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한 선물이 아닙니까?

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용서 주일을 통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 사순절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용서와 화해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용서와 화해가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주님이신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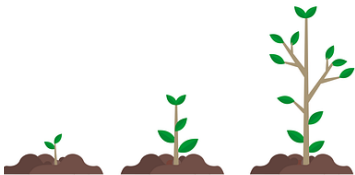
아주 오랫동안 당신은 저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그토록 낮아지셨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화해하실 준비가 된 상태로 당신의 두 손을 저희를 향해 뻗치십니다.

당신의 자비는 저희의 목마른 영혼에 거저 주어지는 맑고 깨끗한 물이 가득한 샘입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수요일(4/5)
오전 : 6시과
오후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금요일(4/7)
오전 : 1시과
오후 : 축일 만과 및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토요일(4/8) 오전 9시
라자로의 부활 토요일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소식

■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성모 희보 성당 축일 예배

성모 희보 축일을 맞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부산 성당을 방문하여 알렉산드로스 한의 종 신부와 함께 예배를 집전하며 축일을 경축했습니다. 25일(토) 저녁에는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강론이 있었고, 26일(주일)에는 조과, 성찬예배, 설교, 사랑의 오찬에 이어 모든 교인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 대 주간 및 부활절 예배 안내

4월 9일	성지 주일	오전 8:45	조과, 성요한 크리스소스툼 성찬예배
		오후 1:30	신랑 의식
4월 10일	성 대 월요일	오후 6:00	신랑 의식
4월 11일	성 대 화요일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신랑 의식
4월 12일	성 대 수요일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성유 성사
4월 13일	성 대 목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6:00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식 (12 복음 봉독)
4월 14일	성 대 금요일	오전 9:00	대시과 (1, 3, 6 시과)
		오후 3:00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의식
		오후 6:00	에피타피오스 의식
4월 15일	성 대 토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8:00	부활절 의식 및 성 요한 크리스소스툼 성찬예배
4월 16일	부활 주일	오전 11:00	사랑의 대만과

지역 성당 예배 시간은 해당 성당에서 확인하세요.

성인의 가르침

형제가 서로 배려를 하면...

어느 수도자가 스승에게 질문했다.

“스승님, 오늘날에도 수도자들이 수도에 정진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왜 옛 교부들이 받았던 은사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걸까요?”

존경받는 스승이 대답했다.

“과거에는 수도자들 간에 사랑이 있어 형제 수도자를 서로 높이려 애썼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사랑이 식고 메말라 형제를 서로 낮추려 하니까 더 이상 하느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베풀지 않으시는 겁니다.”